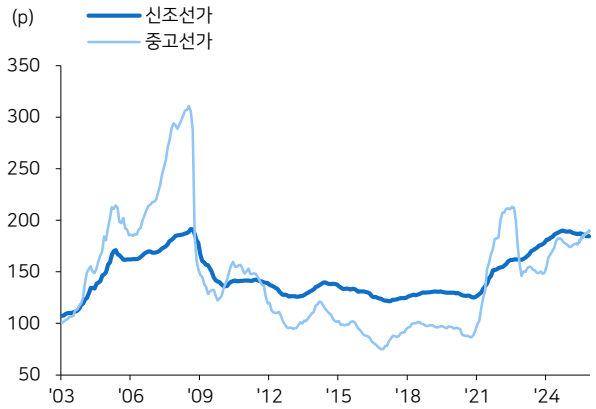
2025. 12. 10 (수)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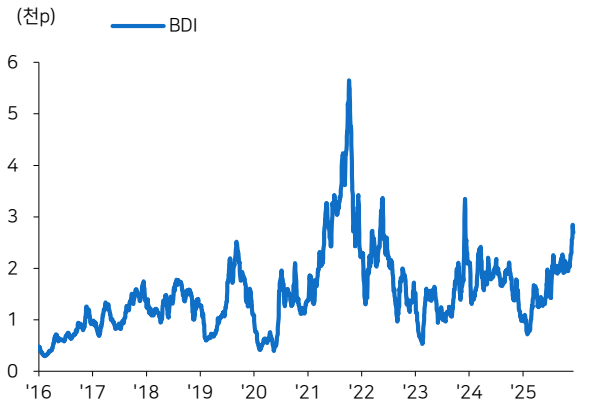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4.4p (+0.1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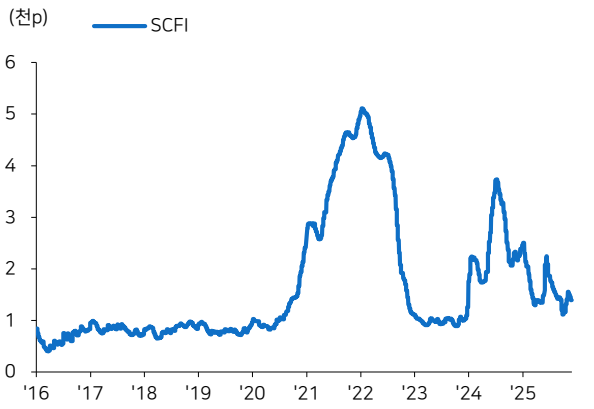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480.0달러 (+1.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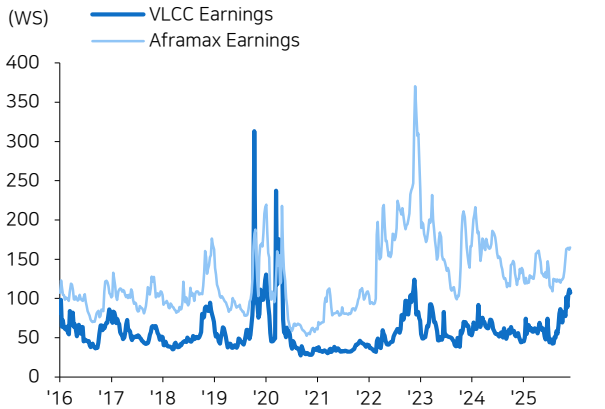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694.0p (-33.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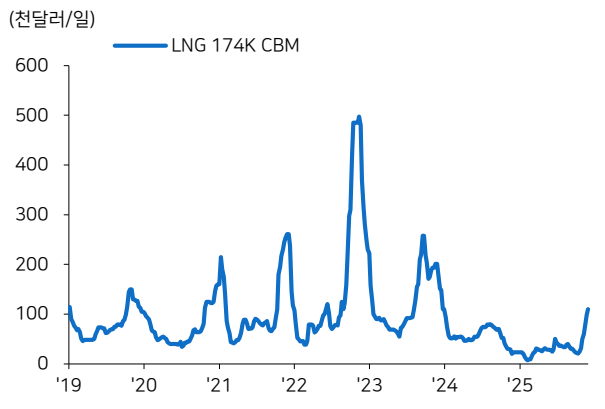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397.6p (-5.5p WoW)



VLCC Spot Rate 102.2WS (-5.0p WoW)



LNG Spot 운임 98.5천달러 (+11.5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호주 정부, 한화오션 오스탈 지분 인수 '성탄절 전에' 결단...K 방산 태평양 진출 분수령 — **글로벌이코노믹**

호주 재무장관에 따르면 한화오션의 Austal 지분 19.9% 투자 승인 여부를 크리스마스 이전 확정할 예정으로 알려짐. 한화오션은 과거 Austal 인수 시도가 무산된 후 규제 회피를 위해 19.9% 지분 확보 전략으로 전환했으며, 이는 미 해군 LCS를 건조하는 Austal을 발판으로 미국 방산시장 진입 기반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라고 전해짐. Austal의 안보적 중요성 때문에 승인 여부가 호주 · 미국의 우려와 산업 효율성 논리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며, 승인 시 한국의 AUKUS Pillar 2 협력 · Sea3000 사업에도 긍정적 신호가 될 전망으로 보도됨. (https://buly.kr/1GKlqg9)

인도 조선소 투자 윤곽...싱가포르법인 역할 주목 — **블로터**

HD현대중공업 합병 이후 싱가포르법인 'HD현대 아시아홀딩스'가 해외(미국 제외) 조선 투자 컨트롤타워로 부상했고, 인도 정부와의 신규 조선소 설립 MOU 체결로 해당 법인이 인도 투자를 주도할 가능성이 보도됨. 조세협약 · 지리적 이점 · 인도와의 경제협력 등으로 싱가포르법인 활용성이 높아졌고, 향후 자금 지원은 HD한국조선해양 · HD현대중공업이, 실행은 싱가포르법인이 맡는 구조가 될 전망으로 알려짐. 법인 초기에는 출혈이 불가피하나 안착 후 배당 회수 사이클이 가능해질 예정이며, 배당이 HD한국조선해양 · HD현대중공업→HD현대로 재유입되는 구조도 예상된다고 보도됨. (https://buly.kr/9XMNx7e)

한화, 고난도 특수선 조기 인도...100 억 보너스 — **헤럴드경제**

한화오션이 덴마크 카델라에 WTIV 2척을 잇따라 조기 인도하며 100억원 이상 인센티브를 확보했다고 알려짐. 인센티브 지급은 선박 인도에 따른 대금 지급 시 포함된다고 전해짐. 한화오션은 조기 인도를 위해 시운전 시작 단계부터 주문주(선주)와 원팀을 구성, 이슈 해결방안과 실행에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했다고 보도됨. 최근 탄소중립 흐름에 맞춰 해상풍력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해상풍력발전기의 용량도 대형화되며 WTIV의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라고 알려짐. (https://buly.kr/H6iy6Fb)

HD 현대중공업, '수소 100% 힘센 엔진' 이르면 2027 년 출시 — **디지털데일리**

HD현대중공업이 100% 수소 연료를 사용하는 힘센(HiMSEN) 양산용 엔진을 이르면 2027년 양산 출시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프리챔버 점화 · 중압 직분사 기반의 430kW급 H35CG-H 엔진을 다기통으로 확장해 디젤 수준의 출력 · 효율을 목표로 개발 중이라고 전해짐. LNG · 디젤 혼소 엔진을 거쳐 수소 100% 엔진까지 단계적으로 기술을 완성해 넷제로 요구에 대응한다는 전략으로 보도됨. 혼소 엔진은 에너지 기준 최대 80% 수준까지 수소 비율을 확인했다고 알려짐. (https://buly.kr/90c70am)

Three scenarios for tankers — with two unlikely options supporting floating storage — **TradeWinds**

OPEC이 내년 시장 균형을 맞출 가능성이 높아 유조선 운임이 현재보다 완화될 전망이 제기됐다고 보도됨. 다만 만약 생산량이 유지되거나 늘 경우 VLCC 운임이 다시 급등할 수 있으며, 생산량 증산 시 코로나19 시기와 유사한 공급 과잉이 발생할 수 있고 생산량 동결 시 수익 상승폭은 더 제한적일 예정으로 알려짐. Clarksons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부유식 저장 수요가 돌아올 수 있으며, 러시아 원유 제재 우회 여부에 따라 단기 조정 후 운임이 재반등할 수 있다고 전망함. (https://buly.kr/CqE4Uk)

NYK lines up large LNG carrier newbuilding order against charter business — **TradeWinds**

NYK Group이 Cheniere Energy와의 기간용선 계약을 기반으로 HD현대중공업에 먼저 4척, 옵션 포함 최대 8척의 LNG 운반선 신조를 추진 중이라고 알려졌으며, 일부는 20만㎥급 대형 설계에 척당 약 2억6,000만 달러가 거론된다고 보도됨. 인도 시점은 2028~2029년으로 예상되며, 최근 미국 중심의 대규모 LNG 증설(200 mtpa 건설 중, 80 mtpa FID 확정)과 노후 선박 교체 수요로 인해 2028년 슬롯이 사실상 소진되고 2029년 슬롯도 빠르게 채워지는 흐름이 관측된다고 전해짐. (https://buly.kr/8phM9Sc)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